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비열하고 야비한 지식인 까발리기 남다른 관찰력 덕분”

SBS '펀치' 조장재 역 박혁권

의사, 변호사, 검사, 교수... 모두가 선망하는 우리 사회 최고 지식인 계층이다. 배우 박혁권(44)이 최근 3년간 잇달아 맡은 배역이기도 하다.

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노인이라 조장재라면 이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작가님도 처음부터 조장재에 대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대놓고 악인'이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좀 다르다. 지식인이라고 다 같은 지식인이 아니다. 박혁권이 연기하는 지식인은 모두 우리의 환상을 깬다. 기존 드라마가 그리던 지식인의 전형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이기에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현실성을 강하게 띤다.

“사람들이 꼽는 거 보면 사실 좀 웃겨요. 마흔 넘으니 웬만한 사람은 다 속이 들여다보이는데 품을 잡으면 우습죠. 오히려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 무섭죠. 조장재처럼 자각지식이 있는 캐릭터는 연기하기가 편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바운더리가 확실한 인간이잖아요.”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탄현SBS 제작센터에서 박혁권을 만났다. 화제의 드라마 SBS TV 월화극 '펀치'에서 야비하면서 도덕관 조장재 검사를 아주 맛있게 연기하고 있는 그가.

“사람들이 꼽는 거 보면 사실 좀 웃겨요. 마흔 넘으니 웬만한 사람은 다 속이 들여다보이는데 품을 잡으면 우습죠. 오히려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 무섭죠. 조장재처럼 자각지식이 있는 캐릭터는 연기하기가 편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바운더리가 확실한 인간이잖아요.”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World News Review, EBS 인문학 특강, and various news and educational program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수능열기, 유선영의 국어, and various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program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5년 겨울방학생활, and various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7일(음 12월 8일 癸卯)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27th of January, lis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욕망의 화신 '레나 정' 기대해주세요

김성령, MBC 새 주말극 '여왕의 꽃' 주연



배우 김성령이 MBC TV 새 주말극 '여왕의 꽃'의 타이틀 롤로 캐스팅됐다. MBC는 '전설의 마녀' 후속으로 오는 3월14일 시작하는 '여왕의 꽃'의 남녀 주인공으로 김성령과 이종혁을 캐스팅했다고 26일 밝혔다.

집에서 태어나 성공만을 위해 질주한 욕망의 화신이다. 이종혁은 TNC그룹의 장남이자 이 회사 외식 사업부 본부장 박민준으로 분한다. 레나 정이 버린 그의 딸 강이슬 역은 SBS '괜찮아 사랑이야'로 혜성처럼 등장한 모델 출신 이성경이 연기한다.

“이용관 BIFF 위원장 사퇴 종용 철회하라”

〈부산국제영화제〉

영화단체 “다이빙벨” 상영 보복... 영화계 독립성 해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 등 영화단체들이 26일 부산시의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 사퇴 권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퇴 종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화단체는 성명에서 “정당한 영화제라면 정치인이 작품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프로그램의 작품 선정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영화계가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